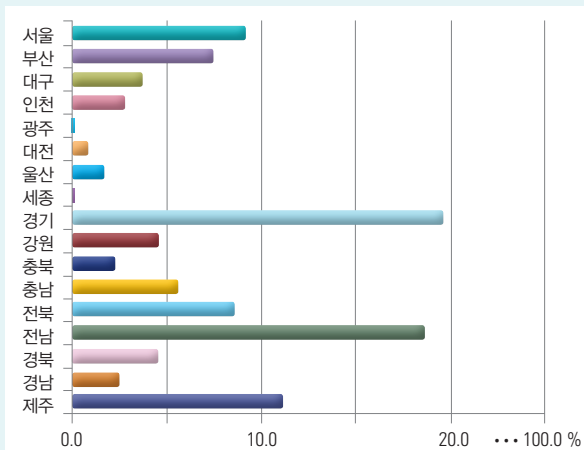


정부 3.0 '빅데이터 분석'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 10월

• 발생지역 : 경기 > 전남 > 제주

• 발생시설 : 음식점 > 학교 > 야외취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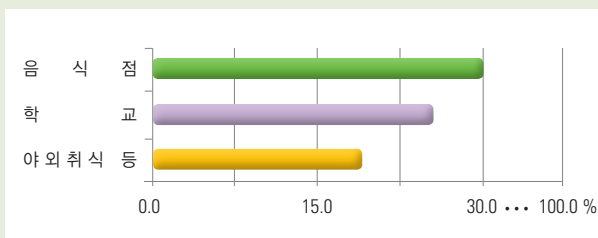
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을것으로 예측



발생 지역 예측

- 경기(18.6%), 전남(16.1%), 제주(11.2%)에서 다양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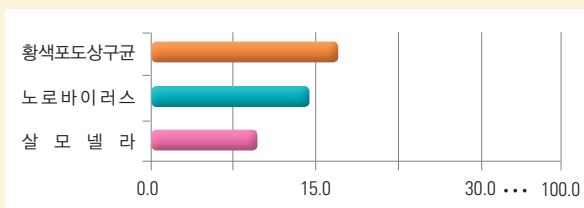
※ 경기(고양, 오산), 전남(신안, 보성), 제주(서귀포, 제주) 특별히 주의 필요



발생 시설 예측

- 음식점(30%), 학교(27%), 야외취식 등(19%)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

※ 음식점(일반식당), 학교(초등학교), 야외행사 등 특별히 주의 필요



원인 병원체 예측

- 황색포도상구균(16%)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

※ 노로바이러스(14%), 살모넬라(11%)

* 식약처 13년간('02~'14) 식중독 정보분석(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동향 · 소셜 네트워크 분석 참조)

* 10월 날씨는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, 일반식당과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, 전국 시·도(시·군·구) 및 교육청(교육지원청)에서는 식중독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